

사회주의 경제특구 비교

- 북한의 경제특구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 18
- 경제특구와 중국 경제 발전 / 28
- 베트남 수출가공구·공단 현황과 발전 전망 / 36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남궁영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정부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 지역의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정부원 산하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은덕군 원정리, 훈흥리를 포함하는 중국 국경쪽의 125km²를 추가함으로써 지대의 총 면적을 746km²로 확장시켰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북한 정부원 결정 제74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나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 ②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기업을 허용한다.
- ③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 ④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⑤ 개발지대 안의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인접 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 ⑥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 조치를 취한다.

경제특구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선진 국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전략을 운영했거나 또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경제특구 설치 배경

북한이 1991년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1993년에는 그 면적을 확장하는 등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첫째, 대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 침체 문제이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

제계획 기간(1987~1993) 동안 연평균 7.9%의 성장 목표를 세웠으나 동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였다. 또한 외화 부족에 따른 원부자재의 수입 감소와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의 평균 가동률도 30~40%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경제 침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 도입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10년 동안 북한의 외자 유치 실적은 140여건에 금액으로는 1억5천만 달러 정도(조총련과의 합작이 90%)에 불과하였다. 이중 실제 설립된 것은 100여건 정도로 투자액은 평

균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이며 그나마도 가동중에 있는 것은 70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

서 경제특구의 설치는 조총련 일변도의 외자 유치 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방 선진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특구 설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경제 개방 정책으로서 동구와 같은 전면적 개방의 경우에 수반되는 정치체제 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와 관

련, 북한은 746km² 면적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내부 경제로부터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1993년 말부터 지대 주위에 높이 3.6m, 길이 80km의 울타리를 건설하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입안·확장에는 대내적인 요인 못지 않게 대외적인 요인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 사례가 외화 부족과 만성적인 경제 부진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경제특구 정책은 ① 대외무역의 확대와 대외무역 업무의 축적, ② 외자 이용에 의한 국면 타개, ③ 외국 선진 기술의 도입, ④ 대외경

“
경제특구의 설치는 조총련 일변도의 외자 유치 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방 선진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제무역의 발전과 세계 각국 정부·국민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 향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
 둘째, 1991년 말 북한이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0년 7월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개발회의에서 중국이 발표한 훈춘 개발 계획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중국의 훈춘 개발 계획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북한이 이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이 갖게 되어 중계무역 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큰 나진·청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중국에게 동해로의 출로만을 열어주게 되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 유치면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중·리간에 추진되고 있는 훈춘-자무비노간 철도 연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국의 흑룡강성과 길림성 불동량의 주요 출구가 러시아의 자무비노항이 된다면 나진·선봉·정진항이 확충된다 할지라도 충분한 불동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1993년 이후 UNDP 주도 하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물론, 자체적인 나진·선봉지대 개발에도 주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 지위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부진 요인 중의 하나가 북한내 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투자 환경의 미비로 파악하고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 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 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납법, 자유무역항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표 1> 나진·선봉 지역의 인문지리적 조건

구 분	내	용
위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만강 하류 남쪽(북위 42° 05' ~ 43°, 동경 130° 07' ~ 130° 45' 사이)에 위치 ·동쪽은 서수라에서 비소단까지 156km의 해안선을 따라 동해와 인접, 북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핫산과 인접 	
면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지대의 총면적은 746km² ·주만 지구 면적 2%(15km²), 산업 도시 면적 3%(22km²)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농림, 수만 도시 면적 ·성사도 20% 미만의 개발 구역 면적 약 200km² 	
기상·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평균 기온 6.3° C,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 -8.8° C,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 20.9° C ·연간 수량 770mm, 일조율 53%, 평균 상대습도 70% 	
주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는 약 13만명 ·나진시를 먼저 약 30만명으로 늘리고 장차 개발 지대의 총 인구를 100만명으로 확대 계획 	
자연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지역에 철광석(부산광산 등), 석탄(아오지 탄광 등),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고령토 등 지하 자원과 산림 자원, 풍부한 수산 자원 보유 ·해안선을 따라 8개의 만, 44km의 자연 호수가 있고 나진에서 80km 위치에 제2의 금강산이라는 칠보산이 있으며 다수의 온천, 약수터, 해수욕장이 있음. 	

자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나진·선봉」 1993, 참조 작성.

관련기관(개발·운영 주체)으로는 대외경제 위원회와 지대 당국이 있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운영 및 집행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시설 건설 부문에서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승인한다. 각종 투자법에 명시된 지대 당국으로서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운영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지대의 개발과 운영 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지대 안의 모든 투자 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사회간접 시설 건설 부문에서 총 투자액 2천만원 이하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 투자액 1천만원 이하 규모의 대상을 심의·승인한다.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이면서도 특별히 제정되는 법적 제도와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다. 즉 북한 당국은 동 지대 내

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조정자적 역할만을 하게 되며 이 지대 안의 모든 기업체들은 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정자 역할은 함에 있어서 국가기관은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일부 국영기업에만 계획을 시달하며

그밖의 다수 기업체들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된다.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우대 조치를 담고 있다(<표 2 참조>).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1993년 3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가 입안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제1단계(1993~1995)에서는 이 지역을 국제 화물 중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고, 제2단계(1996~2000)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에 외국인 투자를 본격

유치하며, 제3단계(2001~2010)에서는 중계 무역, 수출 가공, 금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진·선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이면서도 특별히 제정되는 법적 제도와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다. 즉 북한 당국은 동 지대 내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조정자적 역할만을 하게 되며 이 지대 안의 모든 기업체들은 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봉 지대와 청진항 개발을 위해 총투자 규모 69억 8,900만 달러의 사업을 외자 유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간접시설 부문

우선적으로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 조건을 개선하여 외국 기업의 유치를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32억 3,885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합영·합작을 통한 외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 12억 227만 달러, 2단계에서 10억 2,088만 달러, 3단계에서 10억 1,570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며, 항목별로는 항만 확장 3개 사업에 16억 5,710만

달러, 선봉국제공항 건설에 7억 2,856만 달러, 도로 보수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억 4,650만 달러, 통신 사업 2건에 1억 8,856만 달러, 철도 사업 6건에 1억 5,812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북한은 항만 부문에서 현재 연간 1,300~1,400만 톤 규모의 항통과 능력(청진 서항 713만 톤, 청진 동항 67만 톤, 라진항 300만 톤, 선봉항 200~300만 톤)을 1단계(1993~1995)에서 연간 2,500만 톤(라진항 1,050만 톤, 청진서항 1,000만 톤, 선봉항 400만 톤)으로 확장한다. 2

<표 2>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우대 조치의 주요 내용

비교항목	비자유경제무역지대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형	·합작이나 합영기업	·100% 외국인 투자도 허용
세율	·기업소득세: 25% ·기타소득: 20% ·거래세: 규정세율	·기업소득세: 14% ·기타소득: 10% ·거래세: 규정세율의 50%
조세감면	·해당 사항 없음	·제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6천만원 이상 사회간접투자: 4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수출입 물자: 관세 면제
최저노임	·월 220원(약 100달러)	·월 160원(약 70달러)
상품의 가격결정	·국제시장가격이나 국가가격제정기관의 가격에 준거함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결정(대중필수품 가격결정 제외)
외화관리	·허용 안됨	·외화유가증권거래 허용, 외화현금·외화유가증권의 자유반출입 허용
토지임대	·국토관리기관이 토지 임대 ·협상방법으로 임대 ·장려 부문: 10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사용료 감면, 면제	·지대당국이 토지 임대 ·입찰, 경매 방법도 가능 ·10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사용료 감면, 면제
외국인출입	·사증 소지	·초청장 소지자 무사증 출입
사무소설치	·규정 없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 허용
은행설립	·합영은행만 설립 가능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도 설립 가능

단계(1996~2000)에서는 연간 5,000만 톤(라진항 3,000만 톤, 선봉항 1,000만 톤으로 확장, 청진항 1,000만 톤)으로, 그리고 3단계에서는 라진항과 청진동항의 항통과 능력을 각각 연간 5,000만 톤, 1,000만 톤으로 확장하여 거의 1억 톤에 이르는 항통과 능력을 갖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항들의 기능을 전문화한다는 목표항은 곡물, 석탄, 광석 등 더미짐(벌크화물) 전

문항으로, 그리고 선봉항은 원유 전문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철도 부문을 보면 1단계에서 회령-학송아래 라진항을 연간 500만 TEU(1단계에서 연간 15~20만 TEU, 2단계에서 120만 TEU, 3단계에서 360만 TEU 확장)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집함(컨테이너) 전문항으로, 청진(168km)간 철도 전기화, 조산리-구룡평(13km)

<표 3> 나진·선봉지대 개발 계획의 투자 규모

(단위: 만 달러)

	사업건수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합계
인프라부문	19	120,227	102,088	101,570	323,885
항만	3	37,560	40,550	87,600	165,710
철도	6	15,812			15,812
도로	6		20,680	13,970	34,650
공항	1	46,765	26,092		72,857
통신	2	4,090	14,766		18,856
전력	1	16,000			16,000
관광부문	4	8,760			8,760
공업부문	68	284,495	11,140	70,620	366,255
신용	15	20,095			20,095
동명	3	850			850
창평	3	2,550			2,550
청계	4	5,140			5,140
백학	18	94,350			94,350
응상	4		6,590		6,590
관곡	2		4,550		4,550
후창	8			22,620	22,620
홍의	2			48,000	48,000
기타	9	161,510			161,510
총합계	91	413,482	113,228	172,190	698,900

자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 대상 안내」(1993) 참조하여 작성.
 주: 공업부문 외자유치 희망프로젝트의 단계별 투자금액은 공업지구의 건설 시기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지구는 1단계에 포함시킴.

간 광케 신설, 두만강역-러시아의 핫산(500m)간 북선 철교 신설, 삼봉-중국 개산분(4km)간 철도 건설, 라진-구룡평간 역구내 확장, 두만강역 구내 자동화, 청진-두만강(129km)간 철도 통신 현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라진-구룡평(33km)간 광케를 신설하고 회령-학송간 철도를 보강하며, 3단계에서는 라진-훈춘간 철도와 북부 지구 순환망 철도 일부 구간 복선화, 라진-회령 철도 직선화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 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청진-회령(80km), 청진-라진(92km), 라진-새별(112km), 선봉(홍의)-두만강(9km)간 기존 도로를 개조 및 확장하는 한편 2단계에서는 청진-회령(82km), 라진-새별(73km), 라진-두만강(45km), 은덕(하여평)-원성(7km)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3단계에서는 청진-라진(67km), 새별-남양, 도문(43km)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새별-남양-회령(127km)간 북부지구 순환도로의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항공 부문에서는 선봉군 부포리와 함포리 일대에 국제공항을 신설하여 1단계에서는 연간 여객 수송 능력 800만명과 화물 수송 능력 100만 톤 규모의 시설을 달성하고, 2단계에서 연간 여객 수송 능력을 2,000만명, 화물 수송 능력을 250만 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1단계에서 라진시 남산동 일대에 디지털자동전화교환기(DXGT) 4만회선

규모의 통신 센터를 건설하고 이 지역의 국제 통신을 위해 현재 이용되는 평양-라진-블라디보스토크간 통신망 용량의 대형화와 라진-훈춘간 단거리통신중계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2단계에 가서는 라진에 디지털자동전화교환기 14만 7,800회선 규모의 위성통신지구국을 설치하고 지대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선봉, 웅상, 후창 등에 통신분국을 건설함으로써 이동통신, 무선호출통신, 위성통신과 CATV의 실현을 계획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자동통신분국의 건설과 라진-훈춘, 라진-포시에트간 광섬유케이블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는 현재 20만kw 시설 용량의 6월 16일(선봉)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14억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 청진화력발전소(15만kw), 3월 17일 수력발전소(42만kw)가 있다.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선봉화력발전소의 시설 용량을 40만kw로 확장하고, 2단계에서는 선봉화력발전소의 2차 확장과 함께 라진시 주변에 시설 용량 30만kw의 라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공업지구 개발

북한은 또한 나진·선봉지대를 9개의 공업지구로 나누어 단계별 개발 계획과 지구별 유치 대상 업종을 밝히고 있다. 1단계에서 나진의

신흥지구(200정보: 종합적인 경공업), 동명지구(20정보: 신발, 편직, 일용), 창평지구(60정보: 배수리, 기계), 청계지구(20정보: 피복), 선봉의 백학지구(200정보: 전자, 자동화) 등 5개의 공업지구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 신흥, 백학지구의 확장과 더불어 선봉의 웅상지구와 나진의 관곡지구를 추가로 건설하며, 3단계에서 웅상, 과곡지구의 확장과 나진의 후창지구 및 선봉의 홍의지구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업지구별 유치 희망 업종으로는 제1단계 개발 예정인 신흥지구에는 종합적인 경공업용, 동명지구에는 신발, 편직, 일용품 등을 창평지구에는 선박 수리, 기계 등을, 청계지구에는 피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단계의 웅상지구에는 목재 가공, 보세 창고 등을 관곡지구에는 화학, 건재 등을, 제3단계의 후창지구에는 식료, 방직 등을 홍의지구에는 금속, 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업종, 국제 경쟁력이 높은 업종, 인프라 현대화 및 건설 업종, 자원개발 업종, 기존 설비 및 기술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관광·서비스 부문

관광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8,76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1단계에서 안주(대초도)~신히(괴과도)와 우암~굴포(번포)를 종합 레저시설을 갖춘 관광 휴양지로 개발·조성하고,

200실 규모의 나진호텔과 행정, 무역, 금융, 통신, 상업, 회의 등 업무 활동 및 서비스 종합 센터인 나진·선봉 개발 촉진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관광지를 확대하고, 나진과 선봉에 국제호텔을 건립하는 동시에 무역센터 건설도 구상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웅상과 두만강에 국제호텔의 건설과 각 부분별 센터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나진·선봉 지역 투자 현황과
외국 기업들의 입장**

○ 투자 현황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외국 투자는 핵문제,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감, 사회간접시설 미비, 각종 편의 시설과 문화 공간의 결여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1991년 12월 이후 1995년 11월 현재까지 외국 기업과 약 2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투자된 금액은 2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서방 기업의 투자는 1995년 1월 네덜란드 ING 은행이 합영은행 설립을 합의한 것과 최근 스웨덴의 통신업체 에릭슨과 기술 협력 관계에 있는 태국의 목솔리그룹이 나진·선봉지역에서의 통신 사업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은 것, 영국의 석유회사 셸이 10만 톤

규모의 원유 저장 및 공급 시설 건설(200만 달러 규모)을 합의한 것 정도로서, 현재까지는 관심을 표명하고 현지 투자 여건을 조사하는 상태이다.

○ 각국의 동향

(1) 중 국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의 개발을 위해 UNDP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훈춘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북 3성 개발 계획에는 동해로

의 출구 확보가 관건이므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길림성)은 북한과 1993년에 청진항의 정비·확충 및 청진~회령~연길 사이의 철도 정비 등을 포함한 협정서를 체결, 현

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선회기업은 합작으로 청진에서 회령을 경유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까지 폭 12m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반 공사는 이미 완공하였고 2

차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2) 일 본

일본 기업은 환동해경제권 구상의 구체화 및 UNDP의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이 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큰 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찰단 및 조사단을 빈번하게 파견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동북부 및 극동 러시아에의 비즈니스 확대와 연계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0~10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일 청구권 지불에 대비,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미 국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될 신경제 질서에서 일본 및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미국의

1995년 1월 20일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 이후 GM, MCI(전화회사), 종합용역회사 스텐턴 그룹, US 워싱턴 뱅크 등 11개사 18명으로 구성된 미국 기업 방북 대표단이 1995년 2월 14

“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외국 투자는 핵문제,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감, 사회간접시설 미비, 각종 편의 시설과 문화 공간의 결여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1991년 12월 이후 1995년 11월 현재까지 외국 기업과 약 2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투자된 금액은 2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 평양을 방문, 대북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GM은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 러시아와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스텐턴 그룹은 이번 방북에서 나진·선봉 지역의 가동 중지 상태에 있는 화력발전소 및 정유공장을 인수, 가동시키기로 북한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스텐턴 그룹은 지난 해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직 후 북한을 1차 방문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전력·정유 등 에너지 분야, 항만 시설 등을 둘러보고 전력 생산, 정유, 산업 발전 3가지 분야에서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의해 제한을 받을 동안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대북 시장 진출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러시아

러시아와는 9개 기업이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1500만 달러 상당의 합작기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조·러 무역사무소 대표부를 나진에 설치한 바 있다. 이는 나진항을 이용한 중계 화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⑤ 독일

독일 업계 일부에선 1993년부터 북한과의 각종 경제 협력 확대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중국 등 새로운 잠재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북아 지역의 거점 확보 전략으로 대북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1994년 7월 독일의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자민당 소속 원내총부인 아힘로테(Achim Rohde)의원이 평양을 방문, 석탄 등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과의 합작 투자를 모색하였으며 1994년 10월 독일 동아시아협회는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방문, 이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87개의 세부적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 1995년 2월에는 독일·북한간 청산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1994년 10월 독일 동아시아협회 방북 사절단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계는 북한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타국가의 진출이 별반 없는 마지막 남은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감, 인프라 미비 등으로 힘들겠지만 북한이 외채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를 취하고 독일 수출보험이 북한을 보험 대상 지역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북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